

동반성장포럼
2015.06.26

서비스산업 동반성장 발전방향

이정희
(중앙대 경제학부 교수)
junghlee@cau.ac.kr

I. 머리말

- 경제성장과 함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
 - 과거 한국경제는 제조업의 경공업 중심에서 중공업으로 그 성장의 축이 옮겨갔고, 다시 첨단제조업 중심으로 성장동력이 변화하여 왔음
 - 그리고 제조업에서 이제는 서비스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앞으로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음. 서비스산업은 특히 고용친화적이고 일자리 확대에 그 기여도가 큰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
- 그러나 아직 국내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해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, 그 성장 가능성은 크다고 하겠음.
 -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할 때도, 국내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 비중이나 고용비중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. 따라서 그 성장 가능성은 앞으로도 크다고 하겠음
- 한편, 국내 서비스산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으며, 국내 서비스산업의 특성 상, 대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 매우 큰 산업이라 하겠음
 -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며,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 도소매업과 음식업으로 나타남

II. 서비스산업 주요 현황과 특성

- 국내 경제·산업구조가 그 동안 한국 경제를 주도해 온 제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점차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
- 아직까지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과 기대감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국가경제의 기여 비중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, 향후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화가 되도록 해야 하는 과제라고 하겠음.
- 한편 서비스산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이들의 비중은 클 것이기에, 서비스산업 발전에 있어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과제가 따른다고 하겠음

- OECD 주요 국가와 비교에서,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과 고용 비중은 낮으며, 이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
- 한편, GDP 비중에 비해 고용비중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서비스산업의 고용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

< 주요 국가별 서비스산업 명목 GDP 비중 및 고용 비중 추이(%) >

국 가	명목 GDP 비중 추이			고용 비중 추이		
	2005	2010	2013	2005	2010	2013
미 국	76.9	78.4	80.1	77.8	81.2	80.1
영 국	76.3	78.7	79.2	76.3	78.9	82.8
프랑스	76.6	78.6	78.5	72.3	74.4	79.2
독 일	70.0	69.3	68.4	67.8	70.0	73.8
이탈리아	71.9	73.7	74.4	65.0	67.5	72.2
일 본	70.6	71.3	72.6	66.4	69.7	71.5
대한민국	59.4	59.3	59.3	66.2	68.8	69.5

자료 :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, Trade Brief, NO28, 2015.4 (원자료 : OECD, World Bank, 한국은행)

- 한국 산업의 업종별 경제 기여도를 살펴보면, 서비스산업이 GDP와 취업 기여도에서 제조업보다 크게 나타남
- 서비스산업 내 업종별로 살펴보면, GDP와 취업자 기여도에서 유통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숙박 및 음식점업은 GDP 비중은 낮은 편이나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, 음식점업이 고용 친화적임을 보여준다고 하겠음

< 우리나라 업종별 취업자 비중(2013년) >

업종구분	부가 가치율	명목 GDP 비중	취업자 비중
제조업	21.25	31.0	16.7
서비스산업	36.56	59.3	69.5
도소매업	41.08	8.9	14.6
운수업	25.43	3.6	5.6
숙박 및 음식점업	41.04	2.6	7.9
정보통신업	38.37	3.9	2.8
부동산업	22.92	7.9	1.9
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	44.02	5.1	4.1
사업지원서비스	70.10	2.1	4.7
교육서비스	43.70	5.5	7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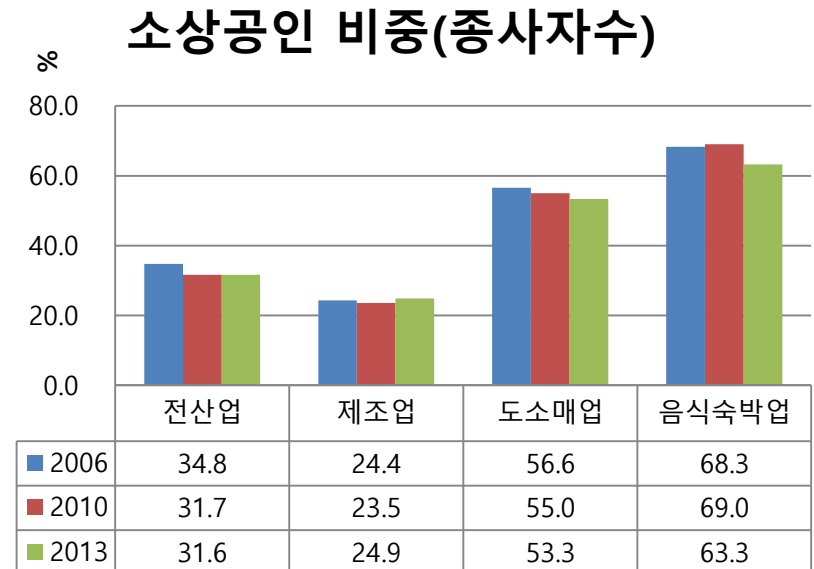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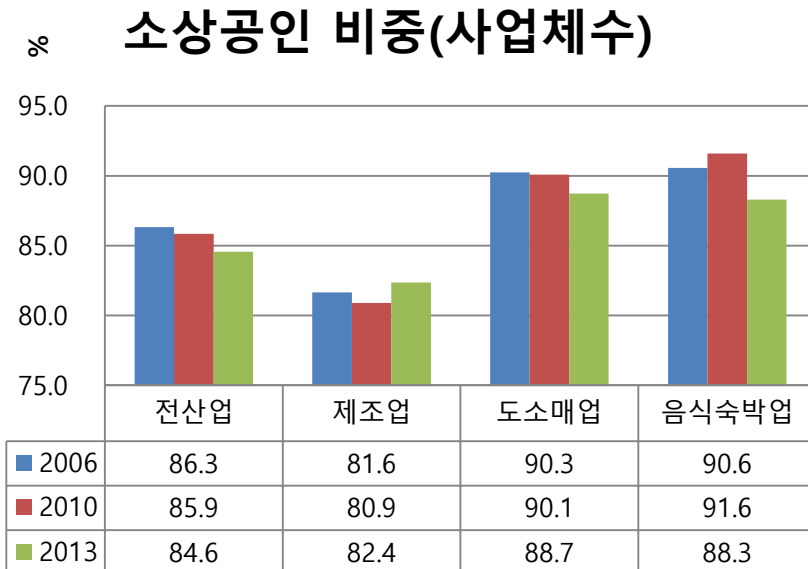
주 :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

자료 :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, Trade Brief, NO28, 2015.4 (원자료 : 한국은행)

✓ 제조업을 제외하고 소상공인 종사자 수 및 사업체수 비중은 감소세

- 전체 사업체에서 소상공인 비중은 2013년 사업체 수 기준으로 84.6%, 종사자 수 기준으로 31.6%, 소상공인 비중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에서 감소하고 있음
- 소상공인 비중은 제조업에서는 낮게 나타나며, 도소매업 및 음식업 등 서비스업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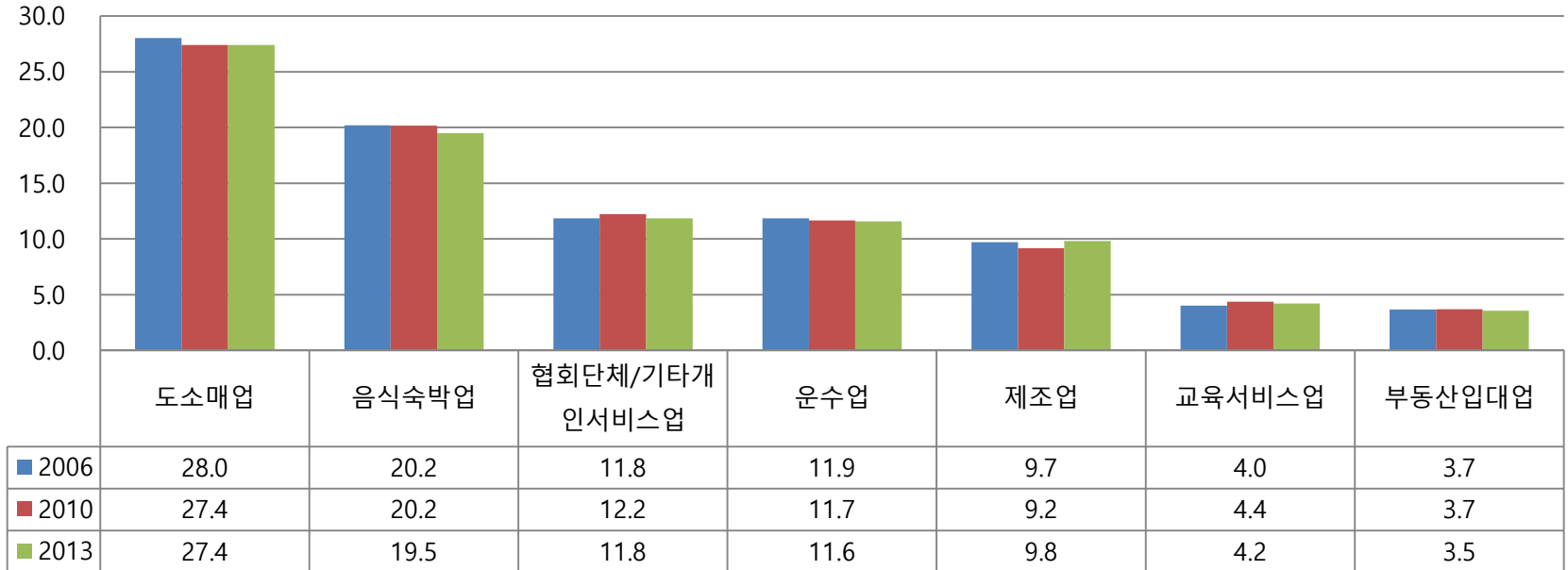
< 주요 산업별 소상공인 비중 변화 >



✓ 전체 소상공인의 47%가 도소매업 및 음식/숙박업에 종사

- 2013년 전체 소상공인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, 도소매업, 음식/숙박업, 기타 개인서비스업, 운수업, 제조업, 교육서비스업, 부동산임대업 순으로 나타남
- 2006년 이후 2013년 까지,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, 소공인 제조업은 전체 소상공인 중에서 9.8%를 차지하고 있으며, 2010년 대비 2013년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소상공인 주요 산업별 비중(사업체수 기준)



III. 서비스산업에서의 소상공인

-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증대와 함께 소상공인 어려움 커지고 있으며,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심화
-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음
- 소상공인의 경영악화로 인한 소득감소는 사업 및 생계를 위한 부채 증가로 이어져,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
-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, 소상공인 문제는 국가경제의 시급한 해결 과제임 : 전체 사업자 중 소상공인 비중 85%, 종사자 수 비중으로는 32% 차지

✓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 중에서 거의 50% 가까이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에 속해 있음.

- 이들 업종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생활 수요가 높은 생활밀접업종이기에 창업 수요가 높은 업종분야임.
- 그러나 이들 유통과 외식서비스시장은 소상공인들 간의 경쟁도 치열하고, 대형유통업체들과 기업형 프랜차이즈 증가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, 생존율이 특히나 낮은 특성을 보이는 업종분야

- 2015년도 소상공인 어려움, 지속 전망

- 경기침체로부터 회복 불투명
 - 저성장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른 소비침체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
 -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율 증가 및 소비지출 감소 우려
- 시장환경이 보다 경쟁적으로 변모해 갈 것으로 보이며, 이에 따른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
- 대형유통업체의 사업전개의 향방에 따라 소상공인의 업종 및 업태별로 그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
 - 최근 아울렛몰 및 복합쇼핑몰 성장 영향
 - 편의점 및 온라인쇼핑몰의 성장 영향
- 소상공인 창업에 따른 소상공인 간 경쟁 증대
-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에 따른 영향 지속
 - 해외 직구 증가,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자 가치추구 성향 증대로 구매행태 변화

✓ 소상공인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, 이는 사회적 비용 증대를 초래하게 되고,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될 것이기에,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음

- 따라서 소상공인 위기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 줄이기 위한 사전적 예방책 필요
 - 소상공인 경영상황 파악을 통한 위기 대응체제 구축필요
 - 소상공인 교육 및 시장 정보 제공 강화 등을 통한 시장 변화 대응력 증대
 - 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의 공정경쟁 환경 구축으로 대기업에 의한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노력
- 임금근로 퇴직자 재취업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 억제
 - 임금피크제 도입 및 정년연장
 - 공공사업의 확대를 통한 경력직 구인자의 재취업 기회 확대
 - 고경력자의 경력 재활용을 통한 지식과 경험 전수 확대 및 재취업을 통한 노후 대책 지원 효과 창출
- 소상공인 사회적 안전망 강화
 - 소상공인 연금제도 강화 필요
 - 기존 4대 연금에 있어서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
 - 공제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

IV. 서비스산업에서의 대중소유통 동반성장

- 대 · 중소기업의 갈등 심화 문제 해결 필요
 - 대형유통업체 사업확대에 대한 중소기업 위기의식 증대 → 중소기업 반발 증대 → 대형유통업체 규제
 - 대중소유통의 갈등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되기에 시급히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
- 대 · 중소기업 갈등 해소를 각자의 노력 필요
 - 대형유통업체의 갈등해소 노력
 - 중소기업업체의 자구적 노력
- 대 · 중소기업의 시장에서의 각자 역할론 정립 필요
 - 대형유통기업은 대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사업 영역에서 경쟁력 증대와 함께 새로운 고용 창출 및 新 소비자 수요창출 등으로 기여 역할
 - 중소기업업체는 골목상권에서 경쟁력을 키우며 지역 고용 증대와 상품 공급 서비스 경쟁력 증대

✓ 공정과 다양성에 기반한 유통시장생태계 보전 및 발전을 위한 대.중소 유통 상생협력 필요

- 대.중소유통 상생협력에 있어서, 대형유통업체와 중소기업 간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, 유통시장의 공정과 다양성에 기반한 시장생태계를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데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
- 대형유통업체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규모화와 현대화에만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, 골목상권의 중소기업체가 제공할 수 없는 새롭게 차별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역할과 기여 필요
- 대형유통업체의 상생협력 노력이, 보여주기 식, 거래를 통한 합의 도출용, 진정성 부족 등으로 비난 받지 않도록 경영 자세의 전향적인 변화 필요

✓ 프랜차이즈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강구 필요 : 거래 공정화 정착 및 혁신형 사업모델의 확산

- 아직 프랜차이즈 가입률은 낮은 편이나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임금근로자의 퇴직이 늘고, 특히 베이비부머의 창업이 증가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
-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사업 수익성과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고, 프랜차이즈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들 가맹점주들의 창업투자에 대한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되어야 할 것임
- 새로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적으로 탄생되어 신규 창업자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 제공 확대
-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동반상장을 위한 공정거래 환경 구축 필요

V. 서비스산업 동반성장 평가 개선

- 지난 3년간 동반성장지수 산정결과를 분석해보면, 전체적으로 조금씩 등급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평가결과에서 최우수 등급 비중이 2011년 10.7%, 2012년 12.2%, 2013년 14%로 향상되는 나타남
-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성적이 양호하며, 성적 향상 또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.
 - 평가결과에 따르면, 제조업의 최상위 등급 비중이 2011년 16.7%에서 2013년 18.3%로 증가하였으며, 전체적으로 제조업체의 참여 비중이 약 60%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반면에 유통업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,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음.
 - 유통업은 대체로 하위 등급에 속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➤ 동반성장 평가 대상 산업 중, 특히 유통업의 개선 필요성이 있음

- 2013년 평가결과를 보면, 평가대상 유통업체 17개 업체 중 1개업체만이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, 보통(개선) 비중이 35.3%, 양호(보통) 비중이 58.8%로 나타나서 타산업에 비해 평가결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
- 한편 2012년 평가결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4개 업체 중에서 2013년 평가결과에서 3개 업체는 한 단계 상위 등급으로 향상된 것은 발전적이라 평가됨.
- 평가결과에 따르며, 최하위 등급인 보통(개선) 비중이 2011년 12.5% 2012년 10.8%, 2013년 14%인 것으로 나타남.
- 한편, 유통업체는 제조업체와 중소기업체와 관계가 주로 다수의 납품거래와 물류 아웃소싱 협력 등으로 나타나기에, 제조업체와 차별적 평가가 필요함

➤ 동반성장 평가 산업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의 차별성 강화 필요

- 공정위와 동반위 모두 평가에 있어서 산업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여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그러나 여전히 산업별 특수성에 따른 차별적 평가 적용이 많이 필요함. 유통업체의 경우에는, 주로 납품거래업체와 물류 아웃소싱 협력업체 등으로 제조업체와는 그 거래 유형이나 특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남
- 그리고 현재 지수 산정에서 주로 납품업체와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, 앞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과 유통업체의 수평적인 경쟁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경쟁자들과의 상생적 경쟁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- 감사합니다 -